

김정은, '식량 추가 지급'한 육군장교 처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과 가족에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고 28일(현지시간)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지난 29일 '뉴스1'이 데일리NK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초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겸열국장(인민군 중장)을 공개심판 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

데일리NK는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NK에 따르면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 실패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켓(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 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체는 또 "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 면서 이는 당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형을 명령하며 격노했으며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 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프랑스, '애국주의' 교육 강화

프랑스가 초등학교생들로 하여금 국가(國歌)를 외우도록 하고, 만 16세가 되는 남녀 학생들을 단기 징집해 국가관을 교육시키는 등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생들이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외워 부를 수 있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라 마르세예즈를 가르치고 있지만 새 지침은 보다 구체적이다. 1학년 때부터 국가의 개념과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 2학년부턴 학생들이 국가 가사를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4학년이 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가를 부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랑스 교육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프랑스 국가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했다.

일부 교원 단체들은 "지나친 강요"라며 비판하지만, 일간 르피가르가 국가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만4,000여명 응답자 중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방부는 만 16세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해 한 달 동안 단기 징병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국가관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의식을 불어넣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단기 징병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젊은 층의 반발이 적지 않자 징집은 하되 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소 후퇴했다.

월드컵 '이번'에 자살 기도 중국인 속출

러시아 월드컵대회에서 이번이 속출하자 중국에서 월드컵 도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9일 '이데일리'가 일본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전 대회 우승국 독일에 승리하는 등 예상 밖의 경기 결과가 속출하자 중국에서 승패 예측에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폐 보급으로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기승을 부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중국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스포츠 복권이 있다. 복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월드컵 개막일인 14

일 전후 1주일간 전체 복권 판매액의 90% 가까이 월드컵 관련 복권이었다.

게다가 불법 도박사이트도 많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복권보다 당첨확률이 높고 휴대전화의 전자화폐로도 돈을 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에 큰 돈을 걸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당국이 계도에 나섰다. 장쑤성 난징시 경찰 당국은 독일이 첫 경기에서 패한 다음날인 18일 웨이보에 "독일을 응원하신 여러분, 침착하시고 투신자살 하지 마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